

##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김명배 (송실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적 전개

1. 한국교회 반공통일론 시기(1945년 해방 후-1979년)
2. 한국교회 통일운동 형성기(1980년-1988년)
3. 한국교회 통일운동 확산과 분열기(1989년-2007년)

### III.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배경

1. 한국 보수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배경
2. 한국 진보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배경

### IV. 나가는 말: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제안

---

• ABSTRACT •

---

##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 Church's Unification Movement and It's the Theolog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Kim, Moun-g-Ba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began in 1945 when it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fter the liberation,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in 1948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d established the governments each other. Korea War and the armistice in 1953 was solidif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Korean peninsula meet the 60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in this year, the structur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is continuing without fundamental change today. Before and after the 1990, Although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ended the Cold War, the North and South Korea are still unable to overcome the Cold War in the post-Cold War era and remain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t first will discussed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Unification Movement. Second, This article will discussed the theology and ideological backgrounds that appeared in the history of Unification Movement of the Church in Korea. From the end of the 1960s, the churches of South Korea divided into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roups in social participation. Because of Korean unification issues, the Korea church is especially experiencing the extreme conflict and division. In these situations, The background of conflict and division of korea church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originated from different ideological orient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d the theolog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Unification theory i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Finally, this paper will be proposed a simple method for Unifi-

cation Mov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o South Korea church.

**Key words:**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movement, Anti-communism, Just War, Just Peace, Missio Dei.

---

## I. 들어가는 말

한반도 분단의 구조적 현실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후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및 신탁통치를 결정하여 통일된 단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한반도는 잠정적으로 분단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구조는 1948년 남한은 단독선거로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여 남북분단은 현실화되었다. 이어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 준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 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올해로 정전 협정 6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 분단의 구조는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공산권의 종주국가인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붕괴되어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냉전시대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물론 분단이후 남과 북의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전 세계적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의 당국자들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남북 당국자들이 정권유지의 차원으로 진행하여 남북한 대결구도의 극복과 관련하여 거의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의미 있는 대화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6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분단 이후 가장 활발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대북포용정책도 결국 보수진영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권교체와 함께 사실상 폐기처분되었다. 보수정권

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7년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폐쇄되고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북한 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등을 둘러싸고 한반도 안에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우선 그동안 한국교회가 견지해 왔던 통일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45년 해방이후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독교 통일운동을 역사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사 속에 나타난 신학·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교회들은 1960년대 말부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갈라져 사회·역사참여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여 왔다. 특히 한반도 통일문제를 두고 한국교회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배경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념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보수와 진보진영의 통일관의 신학·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세계교회의 신학적 동향에 의거하여 한국교회의 통일의 방안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적 전개

### 1. 한국교회 반공통일론 시기(1945년 해방 후-1979년)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자, 일본군의 철수와 치안을 유지할 명목으로 한반도에는 북쪽에 소련군이 남쪽에 미군이 진주

하였다. 이어 12월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한반도 분할에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국도가 분단되자, 남한사회는 신탁통치와 통일정부수립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김규식과 여운형은 남북의 통일정부수립을, 김구는 남북한협상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sup>1)</sup>

이러한 한반도 분단 속에서 남한교회들은 1946년 6월 12일 승동교회에서 열린 ‘남부대회’에서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헌법을 개정하지 않기”<sup>2)</sup>로 결의하여 통일된 교회와 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1947년 4월 대구 제일교회에서 열린 제 2회 남부대회는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남한에서의 독립국가 수립되리라는 전망”<sup>3)</sup>으로 본 대회를 제 33회 총회로 규정하여 남북분단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 교회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월남한 교회지도자들에 의해 반공사상이 자리를 잡아갔다. 이 때 월남한 대표적 지도자인 한경직은 1947년 “건국과 기독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설교에서 공산주의를 “목시록에 있는 붉은 용”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런 반공 분위기는 대중집회를 통해 계속 확산되었다.<sup>4)</sup>

한편, 1950년 한국전쟁은 한국교회에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반공의식을 더욱 더 심화시켰고,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을 지지하게 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을 경험한 남한

1)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421.

2)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종교교육부, 1956), 52.

3) 김양선, 앞의 글, 54.

4) 김홍수, 앞의 글, 428. 1946년 9월에 조직된 ‘조선기독교연합회’는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반공기독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하였다. 그리하여 정전협정이 대두될 때마다, 전국신도대회를 열어 휴전반대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다.<sup>5)</sup> 심지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지기 직전인 6월 15일에도 한국교회는 부산의 신도대회에서 세계교회에 보내는 휴전반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민은 일치하여 최근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안에 대하여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 기독교인들은 또한 마귀의 승리로 초래할 휴전을 반대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다..... 한국통일은 공산주의와의 유화에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굴복시킴으로써 성취되어야 한다.”<sup>6)</sup>

이처럼 이 시기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특히 애초 한국전쟁에 UN의 개입을 촉구했던 미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가 입장을 바꾸어 1950년 11월 말부터 정전협정을 지지하기 시작하자,<sup>7)</sup> 한국교회는 WCC를 용공세력으로 매도하며 정전협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요약하자면, 한국교회는 해방직후부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대체로 반공을 전제한 북진통일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북진통일의 과정에서 무력의 사용 또한 서슴치 않으려 했다.<sup>8)</sup>

196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교회는 철저한 반공주의 노선을 고수하였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7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에 ‘성장 이

5) 김양선, 앞의 글, 140; 김홍수, 앞의 글, 430-431. 1951년 7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신도대회는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전협정론에 반대하였다.

6) 김양선, 앞의 글, 141-142.

7) 김홍수, “1953년 정전협정 전후의 한국교회”, 『기독교사상』(2013.06), 15.

8) 김정형, “한국교회 내 남북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복음으로 돌아가자”(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월례발표회, 2013, 4, 26). 6.

데올로기'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정희는 '선 개발, 후 통일'이라는 구호아래 통일논의에 대한 잠정적 유보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남한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룩하여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박정희 시대는 안보와 경제 성장 이외의 모든 가치는 유보될 수 있다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형적인 이데올로기를 낳았다.<sup>9)</sup>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통일방안으로 '반공주의'노선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1961년 5월 "통일축성 이북인대회"를 개최하여 반공통일론을 대내외에 천명하였고,<sup>10)</sup> 1966년에 한국기독교 반공연맹 창립, 1967년 10월에 아시아 기독교반공대회를 개최하였다. 더욱이 1968년 WCC 읍살라 총회가 월남참전 반대와 중국의 유엔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한국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이 결의안의 저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sup>11)</sup>

한편,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가의 최대목표로 삼고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봉쇄하고, 정부주도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모토로 한 '7.4 남북공동성명'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후 19년만의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 '7.4 남북공동선언'은 평화적 통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남북의 화해와 자주, 외세의 간섭을 제외한 민족대단결의 진일보한 통일 방안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공포하여 통일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1969년 '3선 개헌문제'로 보

9)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178; 한지수,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과정", 『한국사 20,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 2』(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4), 357.

10) 『기독교공보』(1961. 5. 15).

11) 김홍수, 앞의 글, 435-436.

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나뉘어져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그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교회들은 복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선 민족복음화, 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반면에 진보교회를 대표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은 '7.4 남북공동선언' 이후, NCCK를 중심으로 '통일 및 사회정의 기독교협의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7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진보진영의 통일논의는 교회기구 차원의 논의라기보다 대개 개별적인 인사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sup>13)</sup> 요약하자면, 1970년대에도 한국의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반공통일론'을 주장하였으며, 진보진영의 교회들도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여념이 없어 통일문제는 일단 민주화 이후의 고려사항으로 인식하였다.

## 2. 한국교회 통일운동 형성기(1980년-1988년)

한국교회 통일운동사에서 주목해야 할 시기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서부터 NCCK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발표한 1988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미소 냉전이 극적으로 와해되고, 국내적으로는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군사정권하에서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반공의식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발전시켰다. 특히 한국사회 진보진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의 극복이 최우선적 과제를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12)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교회운동사』(서울:북코리아,2010), 94.

13) 김홍수, 앞의 글, 440. 박형규가 '화해의 복음과 남북의 대화에서 "민중의 자주자결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7.4공동성명에 대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체인 민중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혀 통일 논의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민주화 없는 곳에 통일이 불가능하고, 통일논의 없는 민주화는 공허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인식은 한국교회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분단구조 자체를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악으로 보고, 통일문제를 '선교적 과제'로서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처음으로 "통일은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1981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 4차 한·독 교회협의회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고 천명하고, "NCKK가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촉진할 위원회나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여, 독일교회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15)</sup> 그리하여 NCKK는 1982년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조직하고, 통일의 달성을 당면한 선교적 과제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NCKK는 1985년 제 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한국교회가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였다.<sup>16)</sup>

한편, 이시기 WCC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WCC는 198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의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유럽의 교회, 미국의 개신교회, 그리고 소련 정교회 지도자들이 남북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향한 대화 모임을 주선한 것이었다. 이 '도잔소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들이 함께 본격적으로 협의한 최초의 모임이었다. 이 '도잔소 보고서'는 교회의 통일운동에 이정표를 마련해 주었다.<sup>17)</sup> 이 회의 이후 1985년부터 1989년의 5년간은 이 회의의 결과와 건의

14) 김정형, 앞의 글, 6.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편, 『NCC통일문제협의회 자료집』 (1985, 5),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편, 앞의 책, 13.

사항들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유대 속에서 실천되는 기간이었다.<sup>18)</sup>

그러나 이십계도 북한의 교회지도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한만을 보내왔다. 이에 WCC는 1985년 11월 북한에 공동대표단을 파송하고, 1986년 4월에는 미국 NCC대표단이 남북한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WCC는 1986년 9월 한반도 분단이후 처음으로 스위스 글리온에 북한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남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다.<sup>19)</sup>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WCC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기구의 노력들과 함께, 국내에서도 NCCK를 중심으로 ‘통일문제협의회’가 지속되었다. 1985년 5월 24일의 제 1차 협의회, 1986년 8월 제 2차 협의회, 1987년 8월과 11월에 제 3차와 4차 협의회가 있었다. 그리고 1988년 1월에 5차 협의회를 거쳐 드디어 1988년 2월 29일 NCCK 제 37회 총회는 이른바 ‘88선언’이라 불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88선언’은 통일문제를 다룬 80년대 전반기의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잔소 결의문’이라면, 80년대 후반의 가장 주요한 문서로 평가된다.<sup>20)</sup> 이 문서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저주해온 죄책을 고백하였다. 북녘동포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서울:민중사, 1990), 13-19. 1) 분단은 한반도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며 전쟁위협과 독재와 인권유린, 경제적 손실과 인간적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단의 극복이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2)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교류와 만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교회들에 영향을 미쳐 강대국들을 움직여야 한다. 3) 남북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접촉, 교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의 교회들이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18)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5), 469-470.

19) 서광선, 『기독교사상』(2012.8), 89.

20) 박성준, 앞의 글, 470.

를 미워하고 속였으며 죽이기까지 한 죄를 뉘우친다고 고백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둘째, 남한정부는 더 이상 북한정부를 적대시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셋째 민간의 통일논의를 허용하며, 넷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국제정치에 이익관계가 아니라 한반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여기며 서로 대화할 것을 남한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는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 평화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을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인식한 것이다.<sup>21)</sup>

이 '88선언'의 핵심은 한국교회의 통일원칙 5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1) 7.4 공동성명의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수용하고, 2) 인도주의적 원칙, 3) 통일논의에 민중참여를 주장한 것이다.<sup>22)</sup> 이어 같은 해 4월 25일부터 29일에 인천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는 '88선언'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켰고, 그해 11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제 2차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의 교회지도자들이 만나 예배와 교제, 성서연구와 성례전에 동참하고 평화통일의 선교적 과제들을 확인하며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는 NCCK의 '88선언'을 지지하고 1995년을 통일희년으로 선포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작성했다.<sup>23)</sup>

한국교회의 이 같은 예언자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북방정책과 함께 북한을 적이 아닌 동포로 보는 넓은 의미의 대북포용정책을 전개

21) 참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28-30; 박성준, 앞의 글, 472에서 인용.

22) 서광선, 『기독교사상』(2012.8), 90.

23) 박성준, 앞의 글, 470-471; 참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31-33.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반공의식에 대한 자기비판을 전개한 NCKK의 '88선언'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다수의 보수적인 한국교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sup>24)</sup> 하지만, 이시기는 한국교회 진보진영이 WCC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도움을 받아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만나 통일운동의 분위기를 고양시킨 시기였다.

### 3. 한국교회 통일운동 확산과 분열기(1989년- 2007년)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는 NCKK의 '88선언' 이후 대북포용정책이 끝나는 200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 안에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첨예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1995년을 평화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통일논의를 확산시켜 나갔다. 1988년 11월 제 2차 글리온 회의는 남북교회 대표들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채택하고, 남북의 교회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통일 운동의 역사적인 단계를 만들었다.<sup>25)</sup> 이후 남북의 교회들은 미국 NCC 주선으로 1989년 4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워싱턴 협의회'를, 그해 9월에는 일본 NCC가 주최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교회의 사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에는 다시 제 3차 스위스 글리온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 기독교 대표들이 남북교회의 서울과 평양상호 방문, 남북당국간 상호불가침선언 채택촉구, 사업추진 실무기구 설치 등 9개항에 달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95)을 준비하기 위한 5년간의 공동작업계획"에 합의하기도 했다.<sup>26)</sup>

24) 김정형, 앞의 글, 7.

25) 정성한, 앞의 책, 322.

26) 김홍수, 앞의 글, 471.

그러나 1990년대 초 회년운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은 북한 핵문제에 의한 신 냉전적 상황, 회년의 시한부 통일론적 성격, 진보진영에 대한 윤리성 시비,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계 등으로 1994년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회년운동은 회년준비 남북 인간띠 잇기, 8.15연합예배로 진행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 회년운동은 1991년에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이행추구 운동으로 축소되었고,<sup>27)</sup>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진보진영의 통일논의는 급격한 쇠퇴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1990년대에 한국교회 보수진영도 진보진영의 영향을 받아 통일운동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였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보수진영은 정권의 ‘안보 정책’ 테두리 안에서 ‘북한선교’ 운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다른 공산국가들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말살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28)</sup>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이 지배하는 북한 땅은 “사탄의 소굴”이기에 김일성이 죽기를 기다리는 지극히 배타적인 북한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9)</sup> 다시 말하면 80년대 말까지 보수교회의 통일관은 철저히 반공에 기초하고 있었고, 남한정권의 ‘안보정책’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sup>30)</sup> 이러한 보수진영의 통일관은 NCCK의 ‘88선언’에 대한 비판에 잘 드러나 있다. NCCK의 ‘평화통일선언’에 대하여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호의적인 담화를 발표하자, 한국교회의 보수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다.<sup>31)</sup> 남북분단이후

27) 정성한, 앞의 책, 379.

28) 정일오, “북한의 교회와 선교방향”, 『기독교사상』(1980,6), 69; 정성한, 앞의 책, 240에서 재인용.

29) 정일오, 앞의 글, 76.

30) 정성한, 앞의 책, 241.

31) 정성한, 앞의 책, 117.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지 못하던 다수의 보수교회는 진보교회의 통일정책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NCCK의 '88선언'은 보수교회들이 통일논의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부터 보수교회들은 NCCK에 대항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치참여를 시작했다. 이들은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결성하면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갔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수교회는 북한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에 기초하여, 직접적인 북한선교는 통일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른바 '북한선교' 운동을 견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국사회가 '임박한 통일' 분위기에 휩싸이자, 보수교회들도 이전의 통일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한기총'은 1990년 지금까지의 '북한선교' 입장을 수정하고, 산하에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북한에 쌀 1만가마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보수교회들은 북한민간지원단체들을 만들어 '북한선교'에 동참하였다. 특히 1992년 12월에는 한국교회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북한동기운동 차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을 창립하여 일차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 복음주의 협의회에 소속된 신학자들도 북한과 북한교회, 그리고 남한내의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여전히 통일운동을 북한선교와 북한교회의 재건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남북나눔운동 역시 북한은 가난하고 불쌍한 후진국이니 선교적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지배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역시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상실함으로 쇠퇴하게 되었다.<sup>32)</sup>

32) 정성한, 앞의 책, 356-358.

급격한 통일논의의 쇠퇴 속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문제를 처음으로 정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역대정권들이 통일문제를 독점해 왔던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논의를 허용하여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관광문화예술체육종교 분야의 교류 등 다방면에서 남북 간의 활발한 화해와 교류활동을 허용하였다.<sup>33)</sup> 그리하여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다수의 북한관련 민간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1990년대 말 20개 단체에서 2000년대 중반 80여개 단체로 증가하였다. 이 당시의 대표적인 단체로 ‘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민족복지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굿 네이버스’, ‘남북나눔’, ‘대한결핵협회’,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국제옥수수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이 있다.<sup>34)</sup> 이들의 활동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6.15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구체적 실천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설립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북핵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핵심이슈가 되면서, 분단체제에 익숙해 있던 한국사회의 보수진영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반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남북대결의 냉전시대의 잔재를 더 진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잇는 참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sup>35)</sup> 이들은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을 가능케 하였다고 생각하고, 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보수단체들을 만들

33) 김정형, 앞의 글, 7.

34) 김동진, “북한관련 민간단체들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사상』(2012.8), 69.

35) 김정형, 앞의 글, 7.

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관변단체로는 ‘자유총연맹’,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대령연합회’, 이 밖에 새롭게 등장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반핵반김국민회의’, ‘자유시민연대’, ‘나라사랑 어버이연합’, ‘북핵저지시민연대’, ‘한반도 전쟁방지 국민협의회’, ‘뉴라이트’ 등이 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단체로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등이 있다.<sup>36)</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진보교회와 보수교회는 대북포용정책을 놓고 각각 입장이 갈라졌다. 특히 보수교회는 한국사회 보수진영의 대표기수로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대북포용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고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시기이기도 하다.<sup>37)</sup> 그러나 최근 이러한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성경적 통일론을 정리하기 위해 기독교통일학회가 2006년 6월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들은 남북분단을 이념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통일신학과 통일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36) 김동진, 앞의 글, 72.

37) 김정형, 앞의 글, 7.

### III.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배경

#### 1. 한국 보수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배경

##### 1) 반공주의 사상

해방 이후 최근까지 한국 보수교회 통일관의 사상적 배경은 ‘반공주의’ 사상이었다. 이들은 반공주의를 교리 수준으로 상승시켜 놓았다.<sup>38)</sup> 해방 후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북한교회들은 김일성 세력에게 반혁명분자로 분류되어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뿐만아니라 1946년 3.1절 기념예배 사건과 신의주 학생사건, 그리고 11월 3일 주일선거사건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여 다수의 교역자들과 교인들을 남하하게 하였다.<sup>39)</sup> 북한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자, 남한지역의 기독교는 이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반공의 종교 공동체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월남한 대표적인 지도자 한경직은 철저한 반공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요”,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으로 규정했다.<sup>40)</sup> 이러한 한경직의 입장은 이후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철저한 ‘반공주의’ 사상으로 나아갔다. 6.25전쟁을 통해 남한사회에 민주주의 보다 반공을 최고의 가치로 또한 본질적 요건으로 한 정치사상이 구축되었으며, 이 때 한국교회에 ‘공산주의=반기독교’, ‘기독교=반공’의 등식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sup>41)</sup> 1960, 70년대도 한국교회는 박정희 정권의 ‘반공이테올로지’

38) 강인철,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교회”, 채수일, 앞의 책, 346.

39) 서정민, “한국전쟁과 기독교”, 채수일, 앞의 책, 407.

40) 한경직 전집 1, 『정치와 기독교』, 86. 『기독교와 공산주의』, 148.

41) 박정신, “6.25전쟁과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사 인식』(서울: 해안, 2004), 211-12.

에 사로잡혀 ‘반공통일론’을 주장하였다. 한국교회는 1966년에 한국기독교반공연맹을 창립하였고, 1967년에는 아시아 반공기독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반공이데올로기’는 1959년 장로교의 제 3차 분열(통합과 합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국 보수신학의 대부인 박형룡은 교회에 “붉은 세력”이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CC를 비난하였고,<sup>42)</sup> 그의 제자들은 전국의 교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 가르쳐 전투적 반공주의를 주입시켰다.<sup>43)</sup>

요약하자면, 최근까지 한국 보수교회의 통일론은 철저히 ‘반공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반공주의’는 해방 후 월남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전파되어,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진통일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최근의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보수교회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특히 이 보수교회 통일운동의 사상적 뿌리인 반공주의는 반공을 ‘국시’로 삼은 남한 정부와 친화적 관계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정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반공주의적인 보수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수 교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정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sup>44)</sup>

## 2) 북한 선교론

1980년대에 들어와 NCCK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 통일운동에 앞장서자,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북한선교’운동을 주장하

42) 박형룡, 『朴亨龍博士著作全集』 제IX권(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87-90.

43) 채기은, 『한국교회사』(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225.

44) 박정신, “6.25전쟁과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사 인식』, 214.

였다. 이 운동은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교회들이 남한정부의 ‘안보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시도한 통일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북한선교’운동은 여전히 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대북관에 근거하여 북한정부에 대한 반공과 남한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포용을 그 근본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북한정권이 붕괴되거나 북한정권이 양심을 회복하여 그 정권을 내려놓은 것을 통일로 이해하였다.<sup>45)</sup> 다시 말하면, 이시기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북한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에 기초하여, 직접적인 북한선교는 통일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른바 ‘북한선교’론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통일회년 운동과 ‘임박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받아 ‘북한선교’론을 확산시켜 나갔다. 한기총은 통일운동차원에서 1990년 2월 17일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발기인 대회를 거쳐 북한 돕기 운동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운동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새로운 틀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sup>46)</sup> 특히 1992년 12월에는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교회들이 연합하여 북한돕기 운동 차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을 창립하여 제 3의 통일운동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정성한은 1990년대 보수진영의 ‘북한선교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북한선교’의 문제를 북한의 ‘지하교회’에만 관련시키는 입장이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입장은 NCKK의 통일운동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둘째로, 북한의 ‘공식교회’를 참교회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역시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고, 향후 북한 선교의 기회를 준비하지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주된 관심이 지하교회에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입장과 공식교회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

45) 정성한, 앞의 책, 250.

46) 정성한, 앞의 책, 328-329.

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북한의 ‘공식교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북한 선교 전략을 구사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공식교회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통일운동과 같으나, ‘민족통일’보다는 ‘북한의 복음화’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sup>47)</sup>

그러나 1990년대의 보수교회의 이러한 변화는 공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임박한 통일’에 대한 기대 혹은 ‘임박한 북한붕괴론’에 영향을 받아 북한교회를 재건하고자 했던 한기총 등 한국교회 안팎의 ‘허황된 통일사고’의 결과였다. 그리하여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의 이론적 기반인 ‘북한선교’론은 급기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상실함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1990년대에도 여전히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북한선교’론은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염두 해 둔 ‘북한교회 재건 프로젝트’였다.

### 3)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이론

‘정의로운 전쟁론’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제국이 국가 종교로 수납하는 과정에서 로마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교도들의 위협 속에서 발전되었다.<sup>48)</sup> 이 ‘정의로운 전쟁론’은 처음에 암브로시우스(Ambrosius)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 완성되었다.<sup>49)</sup> 이 ‘정의로운 전쟁론’은 중세를 거쳐 지금까지 기독교 주류의 입장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전쟁론’은 한국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6.25전쟁 기간에 남한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전쟁수행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한교회들은 반공주

47) 정성한, 앞의 책, 327에서 정리하였다.

48)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19.

49) 박도현,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34-35.

의 사상에 입각하여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였다. 남한교회의 지도자들은 1950년 7월 대전 제일교회에서 대한기독교구국회를 결성하고, 전선을 따라다니며 선무·구호·방송 같은 일을 담당하였다. 1950년 10월 중순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선교사들과 남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평양에서 기독교인들을 위로 하고 선무활동을 했다.<sup>50)</sup>

휴전이 임박했던 1953년 6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휴전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북진통일 기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구국기독교신도대회는 세계교회에 보내는 성명서에서 한국의 통일이 “공산주의와의 유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굴복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대회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를 “설복될 수 없는 마귀”로 표현하면서 공산주의를 “회개할 줄 아는 선의의 죄인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sup>51)</sup>

이러한 남한교회의 전쟁에 대한 입장은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정의로운 전쟁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당시 남한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무장한 ‘사탄’으로 이해하고, ‘악’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전쟁수행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정의로운 전쟁론’의 기본 요소였다. 이 이론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 되는 1960년대에도 ‘반공통일론’을 매개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68년 WCC 읍살라 총회가 월남전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교회가 이 결의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던 데서 잘 드러난다.<sup>52)</sup> 이것은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월남전에 한국군 파송을 지지함은 물론 신학적으로도 월남전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한국교

5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54-55.

51) 김양선, 앞의 책, 141-143;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57에서 재인용.

52) 김홍수, 앞의 책, 436.

회는 60년대 말까지 여전히 ‘반공의식’을 견지하면서 ‘정의로운 전쟁론’에 기초한 ‘남북통일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최근 북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자, 스스로를 한국 사회 보수진영의 대표기수로 자임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남북관계를 냉전주의적 대결구도로 몰고 가면서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수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행태는 해방 이후 한국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악마’시 하면서 이들의 멸절을 위해 정당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정의로운 전쟁론’이 여전히 내면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정의로운 전쟁론’은 1945년 해방 후 70년대 말까지 ‘반공주의’에 기초한 대다수 한국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선교’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적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 2. 한국 진보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배경

### 1)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신학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의 신학적 배경의 하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이하 WCC)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이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1952년 빌링겐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MC; 이하 IMC) 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발전시켰다.<sup>53)</sup> 이 대회에서 IMC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범위도 정치, 사회, 경제, 문

53) 정성환,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서울: 그리스, 2003), 29.

화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4)</sup> 이러한 1952년 빌링겐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1961년 뉴델리 총회에서 IMC가 WCC와 통합함으로써 꽃을 피우게 되었다. 뉴델리 총회 후 WCC의 산하단체가 된 IMC는 '복음전도와 선교위원회'(CWME; 이하 CWME)로 이름을 바꾸고,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참여의 행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위해서는 불신자와 연대적 행동을 감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사회참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1968년 WCC 읍살라 총회와 1973년 방콕 CWME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방콕 CWME는 구원을 사회적 정의실현과 경제사회적 해방으로 이해하였다.<sup>55)</sup>

1975년 WCC 나이로비 총회는 신앙과 사회참여는 불가분리 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여 JPSS(A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를 주장하였다.<sup>56)</sup> 이후 WCC는 1983년 벤쿠버 총회에서 JPSS를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벤쿠버 WCC에서 출범한 'JPIC'는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1990년 서울 JPIC에 이르렀다. 분단현실로 인한 '평화' 문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의'문제, 또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 등, JPIC의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안고 있는 축소판 세계가 곧 한반도라는 지역의 접합성이 JPIC의 성격에 가장 적합하였던 것이다.<sup>57)</sup>

이 JPIC 서울대회는 10개의 짧은 확인들(affirmation)과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한 4항목의 계약행동(act of covenant)를 제시하였는데, 이 10개의

54)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576.

55) 이형기, 앞의 책, 577.

56)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34.

57) 참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서울: 민중사, 1990), 23-25; 정성한, 앞의 책, 35-36에서 재인용.

확인 가운데 제 4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확인한다”고 말하고, 4개의 계약행위 가운데 하나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의 진정한 안보와 비폭력의 문화”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서울 JPIC 대회는 ‘생명’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사회윤리를 역사상 유례없이 확장시켰던 것이다.<sup>58)</sup>

그런데, 이와 같이 역사·사회참여적인 WCC의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한국 진보교회 통일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1972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폭압적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자,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영향 받은 진보교회 지도자들은 역사와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해방 후 처음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주의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 ‘평화공존’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체인 민중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sup>59)</sup>고 밝힌 이래, 박형규, 강원룡, 박상증, 문익환 등 진보적인 교회지도자들은 에큐메니칼 사회참여신학인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영향을 받아 비록 개인적 차원의 논의이기는 하였지만, 금기시되던 ‘통일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도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통일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 NCCK 산하에 <통일문제연구원>을 설치하여 통일의 달성을 ‘선교적 과제’로 공식화하였다. 이후 진보진영은 해외 에큐메니칼 교회들의 협력에 힘입어 1984년 ‘도잔소 회의’를 시작으로 86년 스위스 ‘글리온 회의’를 개최하여

58) 정성한, 앞의 책, 36.

59) 김홍수, 앞의 글, 440.

처음으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만남을 가졌고, 88년에는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990년에도 진보진영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입각한 통일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1990년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어젠다인 ‘JPIC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분단현실로 인한 ‘평화’ 문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의’문제, 또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을 다루어 한반도가 ‘JPIC’의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안고 있는 축소판 세계”<sup>60)</sup>임을 알렸다. 이러한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은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선교의 범위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빌링겐 IMC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힘입은 것이었다.

## 2) 성서의 ‘희년’ 신학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족통일운동의 신학적 기반의 하나로 구약성서에 나타난 희년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구약성서에 나타난 ‘희년’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희년’ 제도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확대된 개념으로 50년마다 노예가 되었던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땅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회복’의 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년’의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 결핍과 상처의 구조의 현실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해’이며, 하나님이 백성의 공동체가 통일된 온전성을 회복하는 해이다.<sup>61)</sup> 오늘날로 말하면 창조질서의 보전, 토지공개념, 경제정의의 실현, 민중의 해방을 의미한다.<sup>62)</sup>

60) 참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서울: 민중사, 1990), 23-25; 정성한, 앞의 책, 35-36에서 재인용.

61) 김용복, 앞의 글, 289.

62) 채수일, 앞의 글, 266.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이러한 성서의 ‘회년’ 사상을 민족사적 전망과 세계사적 전망에서 확대해석하여 통일신학의 주제로 선택하였고, 여기에서 통일신학으로서의 회년신학이 나타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1988년에 발표한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의 선언〉은 민족통일의 신학적 기반으로 구약성서의 ‘회년’ 사상을 처음으로 천명한 출발점이었다. 이 선언에는 신앙 고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995년을 민족의 회년으로 선포한 것이다.<sup>63)</sup> 이 ‘회년’ 선포는 1988년 11월 제 2차 글리온 회의에서 남북 기독교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선포하였고, 매년 8.15 직전 주일을 평화 통일 기도 주일로 정해 공동 기도문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통일운동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sup>64)</sup>

그런데 이 ‘회년’ 운동은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구체화와 현실화해야 할 과제였다. 그리하여 남북교회는 1990년 동경에서 ‘재일대한국교총회’가 주최한 ‘조국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1990.7. 10-13)를 개최하고, ‘1995년 통일회년’을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을 천명하였다. 남북교회가 합의한 이 ‘회년사업’은 1990년 12월 제 3차 글리온 회의를 통해 ‘회년 5개년 공동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 ‘합의문’에는 “민족 통일을 위한 공동예배순서, 공동기도문, 찬송가 공동선택”, “글리온 공동 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회년 5개년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 기구 설치” 등 9개항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91년 제 40회 NCCK 총회는 ‘회년 5개년 공동사업’을 교회들의 협의회를 통해 실천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sup>65)</sup>

이렇게 한국교회 진보진영이 1995년을 통일회년의 해로 선포한 것은

63) 김용복, 앞의 글, 294.

64) 정성한, 앞의 책, 322.

65) 정성한, 앞의 책, 323-324.

1995년이 민족사적으로는 민족 “해방” 50년임과 동시에 민족분단의 50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기 때문이었다. 과거 한국교회는 민족사의 변혁과정에서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인권운동,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민족의 총체적인 문제인 평화와 통일운동을 위하여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반미의식이 분출하였고, 국제적으로는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어 동서독이 통일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진보진영이 1995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으로 선포하여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민족사의 복원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현하려는 결의였다.<sup>66)</sup> 그리하여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 자유와 해방, 공동체의 통일된 온전성의 회복을 선포하는 구약성서의 ‘희년’ 사상은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통일신학의 성서적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 3) ‘정의로운 평화’ (Just Peace) 신학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신학적 배경의 또 하나는 WCC의 ‘정의로운 평화’ 신학이다. WCC는 1948년 창립 이래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분쟁과 전쟁, 대량살상, 그리고 핵개발과 군비경쟁 등 각종 구조적 폭력을 보면서 ‘정의로운 전쟁’ 이론 대신에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정립해 나아갔다. ‘정의로운 평화’ 개념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1948년 제 1차 암스텔담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도하고, 전쟁반대와 교회가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sup>67)</sup>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1954년 제 2차 에반스톤 총회는 국제분쟁과 전

66) 김용복, 앞의 글, 296.

67) 김동진, 『기독교사상』(2013,6), 57.

쟁위기 극복을 위해 군축과 군비통제를, 1961년 제3차 뉴델리 총회는 미 소간의 무기 개발경쟁과 핵실험 중단을, 1968년 제 4차 옹살라 총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을 지지하면서 군사대국들의 군비경쟁 중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WCC 옹살라 총회에서 남미의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고, 논쟁의 결과 1973년 “폭력, 비폭력,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Violence, Nonviolence, and the Struggle for Social Justice)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해방혁명이란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그 목표로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는 적과의 화해를 염두 해 둔 비폭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sup>68)</sup>

이어서 1975년 제 5차 나이로비 총회는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극복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나이로비가 ‘평화’와 ‘정의’를 연결하여 이른바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WCC는 1983년 제 6차 벤쿠버 총회에서 ‘JPSS’를 ‘JPIC’로 발전시키고, ‘정의’는 모두가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며, ‘평화’는 비폭력적 정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였다.<sup>69)</sup> 이것은 벤쿠버가 이른바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점점 더 구체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WCC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캔버라를 거쳐 1998년 하라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일구는 교회의 폭력극복 10년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하라레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도 세계도처

68) 김동진, 앞의 글, 58.

69) 김동진, 앞의 글, 59.

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대량살상,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을 목도하면서 폭력극복의 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은 것이었다. 이어 2006년 포트알레그로 총회는 하라레의 <폭력극복 10년 운동>을 마감하면서, 2013년 제 10차 부산총회 준비모임으로 2011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평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평화대회는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부름’(Ecumenical Call to Just Peace)이라는 선언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정의하였다.

정의로운 평화의 길은 ‘정당전쟁’(bellum iustum)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롭지 못한 무기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들 이상이다. 그것은 무기를 잠재우는 것에 더하여 사회정의,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과 공유된 인간의 안전을 포함한다.<sup>70)</sup> ...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수단 혹은 보다 작은 악이긴 해도 압박한 치명적인 위협들에 노출된 취약한 사람들의 그룹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군대사용이 꼭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력 사용의 어떤 신학적인 혹은 다른 정당화들에 도전하고 “정당전쟁” 개념에 대한 신뢰와 그것의 관계적 사용이 폐기처분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71)</sup>

이 선언문은 정의로운 평화의 길은 ‘정당전쟁’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분명히 하면서, 그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합법적인 군대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그 어떤 신학적 정당화나 ‘정당전쟁’이론에 대한 신뢰나 사용은 폐기처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른바 16세기 재세레과의 ‘평화주의’를 다시금 상기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WCC가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이 ‘정의로운 평화’ 개

70) 『정의로운 평화로의 하나의 에큐메니칼 부름, 2011』, 10.

71) 앞의 글, 22.

넘은 1980년대 한국교회 진보진영 통일운동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 진보진영은 1984년 WCC가 주최하여 일본 도잔소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협의회’의 영향을 받아 평화문제를 복음의 핵심적 이유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2월 28일 열린 NCCk 제 4차 총회는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평화를 정의하였다.

이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은 민주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 ... 민주·정의·통일·평화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실천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평화운동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상잔의 비극적인 역사에 뿌리박은 깊은 적대감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바탕이 될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확대하고 공동 이익의 터를 넓혀 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가 평화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되며 평화의 문화 풍토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sup>72)</sup>

이 선언문은 평화란 민주적이면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화운동을 추진시키고 뿌리 깊게 박힌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반공교육’ 대신 ‘평화 교육’을 요청하였다.<sup>73)</sup> 뿐만 아니라, ‘88선언’에서도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sup>74)</sup>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WCC의 ‘정의로운 평화’ 개념을 한반도 통일운동의 신학적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정의로운 평화’ 개념은 1990년대 들어와서도 한국교회 진보진

7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34회 총회 총대일동,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 제 34차 총회 선언문”(1985. 2.28), 『교회와 세계』(1985.3), 16-17.

73) 정성한, 앞의 책, 269-272.

7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23.

영의 한반도 통일운동의 신학적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 IV. 나가는 말: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제언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은 그 내용상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45년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에 들어선 후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기까지이다. 이 시기 북진통일론 혹은 반공통일론을 주장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에 동조한 시기이다. 두 번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부터 NCCK가 ‘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한 1988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8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 통일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한국교회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기독교 통일운동에 나선 시기이다. 세 번째는 NCCK의 ‘88 평화통일선언’이 발표된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물론 한국교회 보수진영도 ‘북한선교’라는 이름으로 통일운동에 나선 시기이다. 그러나 이시기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놓고 한국사회와 교회 안에 남남갈등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진보진영의 교회들은 해방직후 통일정부 수립운동, 1980년대 통일운동, 그리고 2000년대 대북포용정책지지 등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분단자체를 한반도를 괴롭히는 다양한 악의 근원으로 보고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 및 공산주의자들과의 화해를 촉구하였다. 또한 분단극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에 헌신하여왔다. 반면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분단극복의 과제보다 자유수호의 과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단극복의 노력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해방 후 공산주의의 꺾박 속에

서 공산주의와는 어떠한 화해나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반공주의와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또한 분단이 고착화되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수호를 위해 반공사상을 고수하여 왔다.<sup>75)</sup> 나아가 최근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악의 섬멸을 위해 ‘정의로운 전쟁’을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영의 교회들과는 달리 오늘날 세계의 주류교회들은 16세기 재세례파가 주장했던 ‘평화주의’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 독일교회, 미국 가톨릭교회,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는 거듭해서 평화주의로 선회하는 문서들을 내고 있다. 특히 최근 2011년 킹스톤 문서는 WCC의 이러한 인식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세계주류교회의 입장을 동의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sup>76)</sup>

첫째로, 이제 한국교회가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폐기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나서기를 제안한다. 세계주류 교회들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버리고 ‘평화주의’로 선회한 이유는 핵무기로 인한 다량살상 시대에는 더 이상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면전이 다시 발생한다면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만한 현대무기들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을까 모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의로운 전쟁’이론은 이제 더 이상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공멸하는 핵전쟁은 물론 그 어떤 무력 사용에 의한 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한국교회가 사회와

75) 김정형, 앞의 글, 8.

76) 이 부분은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가 2013년 6월 22일 한반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공보』 발표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선언〉을 참조하였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올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구상의 어느 지역보다 냉전이데올로기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북측은 핵개발로 남측은 무기수입을 통하여 수많은 재정적,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남측은 무기수입 중단을 통해 전쟁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무모하고 무익한 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교회와 사회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로, 한국교회는 이제 ‘반공 교육’을 폐기하고 “평화 교육”을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1985년 NCCK는 <평화통일선언문>에서 지금까지의 반공 교육을 평화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다. 해방이후 북한의 공산주의와 북한정부에 대하여 남한의 국민들의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되어 있는 ‘반공주의’와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 교육’은 필수적이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줌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강인철.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교회』.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김동진. 『평화를 향한 세계 교회의 목소리』. 『기독교사상』, 2013, 06.
- 김동진. 『북한관련 민간단체들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사상』, 2012, 08.
-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북코리아, 2010.
- 김정형. “한국교회 내 남남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복음으로 돌아가자”.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월례발표회, 2013, 4, 26.
-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종교교육부, 1956.
-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김홍수. 『1953년 정전협정 전후의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2013, 06.
- 박도현.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박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 서울: 혜안, 2004.
- 박형룡. 『朴亨龍博士著作全集』 제IX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백낙준. 『한국전쟁과 세계평화』. 『사상계』, 1953, 6.
- 서정민. 『한국전쟁과 기독교』,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 정일오. 『북한의 교회와 선교방향』. 『기독교사상』, 1980, 06.
- 정하은. 『6.25에서 본 한국정치의 정통성』. 『新像』 4권 제2호, 1971년 여름호.
-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서울: 민중사, 199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편. 『NCC통일문제협의회 자료집』, 1985, 5.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 서울: 민중사, 199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4회 총회 총대일동.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 제34차 총회선언문”(1985. 2.28), 『교회와 세계』(1985.3).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한경직 전집 1. 『정치와 기독교』, 사)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2009.
- 한경직 전집 1.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2009.
- 한지수.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화과정”. 『한국사 20, 자주 · 민주 · 통일을 향하여 2』.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4.
- 『기독교공보』. 1961. 5. 15.
- 『기독교공보』. 2013. 6. 22.
- Bainton, Roland H.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0).
- Goodall, Norman., ed. “Missions Under the Cross”, *Willingen in Germany*, 1952, London: IMC, 1953.
- Moltmann, Jürgen., *On Human Dig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논문투고일: 2013. 10. 29.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 국 문 초 록 •

---

한반도 분단은 일제부터 해방된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되었고, 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신탁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1948년 남북한에 별도의 단독정부 수립되었고, 한국전쟁과 1953년 정전협정의 체결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였다. 올해로 정전 협정 6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 분단의 구조는 이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붕괴하여 냉전체제의 종식 되었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냉전시대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우선 그동안 한국교회가 견지해왔던 통일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사 속에 나타난 신학·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교회들은 1960년대 말부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갈라져 사회역사참여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여 왔다. 특히 한반도 통일문제를 두고 한국교회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배경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념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보수와 진보진영의 통일관의 신학·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교회의 신학적 동향에 의거하여 한국교회의 통일의 방안을 간단히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반도, 통일운동, 반공주의, 정당전쟁이론, 정의로운 평화, 하나님의 선교

---